



부안해경, 지역연안사고 예방협의회 정기회의 실시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생덕)는 부안·고창 지역의 연안 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연안 사고예방협의회' 정기회의를 지난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해양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지방해양수산청과 지자체, 군부대 등을 위원으로 하는 협의기구로 부안해경, 군산해수청, 부안군청, 고창군청 등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정기회의를 통해 2025년 연안사고예방 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한 연안해역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연안사고 현황 등에 대해 정보 공유와 연안해역 안전시설물의 신규 설치 등 연안사고 예방 방안을 논의했다. 박생덕 서장은 "정기회의를 통해 각 관계기관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안전하게 바다를 즐길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은, 브라보 코리아 무빙 라운지 3호 운영 시작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외국인 고객 맞춤형 이동 서비스 '브라보 코리아 무빙 라운지(Bravo Korea Moving Lounge)' 3호 차량을 서울에 정식 배치하며 전국 단위 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이번엔 출범한 3호차는 전북은행 동대문 외국인금융센터 소속으로 소포항과 관광의 허브인 동대문과 외국인 상권 및 주거가 뒤섞인 고밀도 지역으로 꼽히는 대림 등 외국인 밀집 상업, 주거 거점을 중심으로 운행된다. 3호차는 이들 지역 특성에 맞춰 금융 복합 상담과 안내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기획됐다. 앞서 1호차는 부산 및 경상도 지역에서 외국인 대상 홍보 및 상담 중심, 2호차는 안산 및 경기권을 순회하며 기관 동행과 이동 지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차량마다 각기 다른 콘셉트와 역할을 부여한 점이 브라보 코리아 무빙 라운지의 가장 큰 특징이다. /오상근 기자

남원 죽향동, 사례 관리 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남원시 죽향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임정숙)는 1일 17구 소통 행정 추진을 통해 장기간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 온 사례 관리 대상자를 발굴해 주방 싱크대 및 도배·장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고령의 독거노인으로 부엌 상·하부장 노후화 및 싱크대 배수구 막힘으로 실내에서 물 사용이 어려워 위생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받고 동 맞춤형 복지팀은 사례회의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확인하였다. 이번 주거환경 개선은 싱크대 전면 교체와 함께 도배 및 장판 시공을 완료하였으며, 대상자는 "생활환경이 개선되어 매우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이백면, 찾아가는 효자손 사업 진행

남원시 이백면 행정복지센터(면장 황도연) 맞춤형복지팀은 각 마을에 있는 경로당을 매달 3~4회 직접 찾아가 건강상담, 교육, 건강프로그램, 복지서비스 정보 안내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효자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매달 3~4회 매월 25명 이상의 대상자에게 마을내 경로당을 방문, △이백면건강자손(협업, 혈당 건강검진조사) △이백면건강자손(긴급상황 대비 위한 핸드폰 교육, 복지안전 119알 설치 및 설명) △이백면복지자손(스마트교육, 기억력 박스 운동)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실시하는 중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어려운 이웃에 꿈과 희망을’

취약계층을 위한 공간 ‘소통과 상생’ 개소식 성료

‘소통과 상생’ 개소식이 지난 16일 오후 2시,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63번지 1층에서 열렸다. ‘소통과 상생’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39년째 암 환자와 목거노인 장애인들을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쳐온 정인 스님이 보다 폭 넓게 소년소녀가장과 사각지대에 계셔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웃들 특히 병이 들었으나 돈이 없어 병원이 가지 못하는 이웃들과 뜻을 있으나 절망적인 이웃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특별히 조성됐다. 정인 스님은 “한 알의 밀알이 되기 위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소통’을 통해 무엇이든 힘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보탬이 되려 한다”고 이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함께 참석한 이창승 전 전주시장은 축하사를 통해 “종교는 다르나 정인 스님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20년 넘게 같이하게 됐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도 합쳐어하는 분들을 위하는 것을 보고 감동받아 종교현 안 다육교회 장로)를 초월해 작은 힘이지만 보탬이 돼 왔다”고 했다. 이날 전영배 전 대한노인회전주시회장과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도 격려사, 기념사를 통해 많은 일들이 있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정동영·안호영·이성운 국회의원,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이 축기로 응원해줬으며, 이병관 대자연병원장, 김현화 광주전남벤처기업 여성연합회장, 가수 오은주·현진우·현숙·서지오씨, 박영원 연주연예인회 회장 등 많은 인사들이 ‘소통과 상생’ 개소를 축하해줬다. 이에 정인 스님은 “많은 분들의 축하와 격려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조심을 잃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재훈 기자

휴비스 전주공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 동참

전주지역 향토기업으로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기업인 (주)휴비스 전주공장이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에 나섰다. 휴비스 전주공장은 20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추진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게, 장년은 희망을 품고, 노인은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취지로 지난해 10월부터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번 참여는 아네코코리아(주) 박종석 대표의 추천으로 이뤄졌으며, 백승덕 휴비스 전주공장장이 대표로 뜻을 함께했다. 백 공장장은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지역 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휴비스는 전주에 뿌리를 둔 기업으로서, 청년과 시니어 모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인구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공장장은 캠페인의 다음 주자로 최명권 전주시의원과 이영훈 삼양화성(주) 대표를 추천했다. 휴비스 전주공장은 지난해 전주시와 ‘세대통합형 시니어인턴십’ 협약을 체결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과 세대 간 교류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풍부한 경험을 지닌 시니어가 청년 인턴에게 실무를 지도하는 방식으로 세대 간 협력과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주김제완축협·김제농협 조사료 경축순환농업 협약 체결

전북농협은 전주김제완축협과 김제농협이 상호 상생(相生)정신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실익 증진 및 조사료 경축순환 활성화에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엔 농협경제지주 친환경전실팀방역부 축산환경국 김우진 국장, 전북농협 안전우 경제본부부장, 농협중앙회 김제시지부 김유현 지부장, 전주김제완축협 김창수 조합장, 김제농협 이정용 조합장, 김제시 송태종 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퇴·약비 공급을 통한 조사료 재배능가(단지) 및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가축분뇨 퇴·약비 이용확대 및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로 경축순환농업과 축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했다. 협약에 따라 전주김제완축협은 가축분뇨를 이용한 양질



의 퇴·약비를 생산하고 김제농협에 공급 및 살포하여 우수한 조사료가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며, 김제농협은 경축농가와 함께 전주김제완축협이 생산한 가축분뇨 퇴·약비를 이용하여 우수 조사료 생산·공급에 협력하는 등 김제농협은 조사료 생산에 가축분뇨 퇴·약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농업환경 보전과 농축산업의 지속발전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김창수 조합장은 “앞으로도 고품질 퇴비를 공급해 경축순환농업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정환 본부장은 “조사료 경축순환농업 협약을 통해 축산농가와 지역농업이 상생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기전대, 청년고용정책 홍보·진로지도프로그램 운영

전주기전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일 교내 종합행정동 일원에서 청년고용정책 홍보·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고용정책을 알리고, 청년들의 진로설계와 실질적인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기전대 대학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과 지역 청년들도 참여해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청년고용정책 정보를 직접 접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로를 구체화하는 기회를 가졌다. 행사에서는 프레젠테이션 직업적성검사 및 결과 해석, 입사지원서 컨설팅, 채용 정보 제공, 청년고용정책 안내 등 맞춤형 진로·취업 상담서비스가 제공됐다. 조덕현 산학협력처장은 “청년고용정책은 변화하는 사회와 고용 시장에서 청년들이 방향을 잃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한다”며 “이번 행사는 정책을 이해하고 활용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진로·취업 지원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내실화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임실치즈농협, 전주 에코그린지점 개점

임실치즈농협은 20일 전주시 덕진구 백석남로 121에 임실치즈농협 에코그린지점을 개점했다. 이날 개점식에는 이창환 전북농협 본부부장과 임실치즈농협 임직원 등이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임실치즈농협 에코그린지점은 조합원과 지역주민에게 편리한 금융서비스 확대 제공하며, 임실치즈판매점을 동시 개점하여 대한민국 대표브랜드인 임실치즈 판매홍보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이창식 조합장은 인사말에서 “지속적인 낙농산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건전한 경영이 기반 되어야 함을 인식하여 에코그린지점을 신규 개점한 만큼, 많은 사랑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남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박람회 참가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제2회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박람회에 참가, 청소년의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체험 중심의 상담 부스 ‘스트레스 ZERO, 마음약방’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체험형 상담에는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인식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스트레스 탐색 질문지로 감정을 점검하고, 두더지 게임으로 즐겁게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맞춤형 처방 체험에서는 고민에 따라 마음이 편안해지는 약(발라드 볼), ‘얼굴이 빛이 나는 약(마스크 팩)’ 등 자신에게 필요한 약을 고르며 심리적 위로와 재미를 동시에 느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자본센터, 온기나눔 안전예방 캠페인

남원시자본봉사센터는 지난 19일 시 도심 일대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온기나눔 안전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사회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실천하여 지역 내 시민들에게 온기를 전하기 위해 추진, 남원시 남성·여성의용소방대, 자율방범연합대 등 지역의 안전 파트너들이 함께 참여했다. 활동에서는 ‘서로를 지키고, 함께 만드는 안전 예방’이라는 슬로건으로 교차로, 전통시장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전통시장 안전 홍보 △교통안전 수칙 안내 △산불 화재 예방 활동 등 실질적인 예방 중심의 캠페인을 진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백구면행정복지센터, 영농철 ‘농촌일손돕기’ 추진

김제시 백구면 행정복지센터는 직원들이 20일, 영농철 일손이 부족한 우리지역 포도농가를 위해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백구면 포도 농가에서 추진한 이번 농촌일손돕기 활동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한 우리지역 농가들의 인력난 해소를 돕고, 농번기 농가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해보며 공감하기 위한 봉사활동으로 매년 영농철이면 추진 되어온 뜻깊은 활동이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일손돕기 활동에 구슬땀을 흘리기도 했지만, 백구면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하루의 값진 노동이 우리지역 농가에 큰 힘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여 농촌일손돕기 활동 내내 즐겁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포도 농가는 “매년 바쁜 영농철이면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백구면사무소 직원들의 고마운 도움으로 인해 그러한 어려움이 가뭇에 단비가 내린 듯 해갈되었다. 직원분들께 감사하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김제=곽도태기자